

의에서 수습된 資料를 放置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一九六八年 七月三日稿)

註

- ① 拙稿·忠南泰安의 磨崖三尊佛像 「歷史學報」 第十七·八合輯 一九六二年 六月
- ② 이 같은 蓮花紋樣式은 一九六七年一月 서울市 三陽洞 出土의 金銅 如來立像(國博陳列)의 臺座 또는 高句麗壁畫에서 볼 수 있다.
- ③ 佛像片(특히 下部)의 剝落은 前室火災가 原因이며 그 年代는 高麗以後로 推定된다.
- ④ 秦弘覺·南院女院峙의 磨崖如來像(考古美術)五十一、一九六四年 十一月
- ⑤ 拙稿·奉化 半跏思惟石像의 調査 「文化財」 第三號 一九六七年 十二月 文化財管理局 刊
- ⑥ 拙稿·慶州 南山長倉谷에서 출진 三尊石像 「史學會誌」七號 一九六四年 十二月 延世大 史學研究會編

### 泗川 松旨里 石箱式古墳群 發掘調査概要

鄭 永 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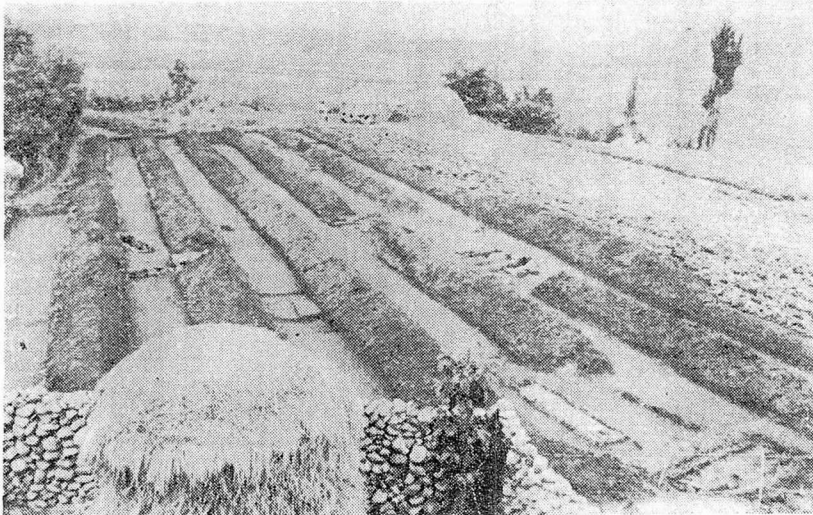
檀國大學校 博物館에서는 慶尙南道 泗川郡一帶 先史時代의 遺物調査計劃에 따르는 第二次調査①로 지난 七月二十四일부터 八月三日까지 泗川郡 龍見面 松旨里 三三五番地 耕作地에 位置하는 石箱式古墳 十三基를 發掘調査하였다.

現在 泗川郡에 遺存하는 石箱墳群은 同面과 正東面 等地에 數處 있을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나 今般 松旨里의 石箱墳을 發掘調査케 된 것은 지난 六月初 統營郡守 金相朝氏와 泗川郡公報室長 金榮泰 兩氏의 紹介로 現地를 踏査한 바② 이 곳 松旨里 部落에 石箱墳의 板石이 家戶마다 散亂하고 特히 洪性鐵氏(三六歲)가 所有한 上記 耕作地에 石材가 出土되 며 土器破片이 無數히 發見된다 하여 當時 筆者도 이 光景을 目擊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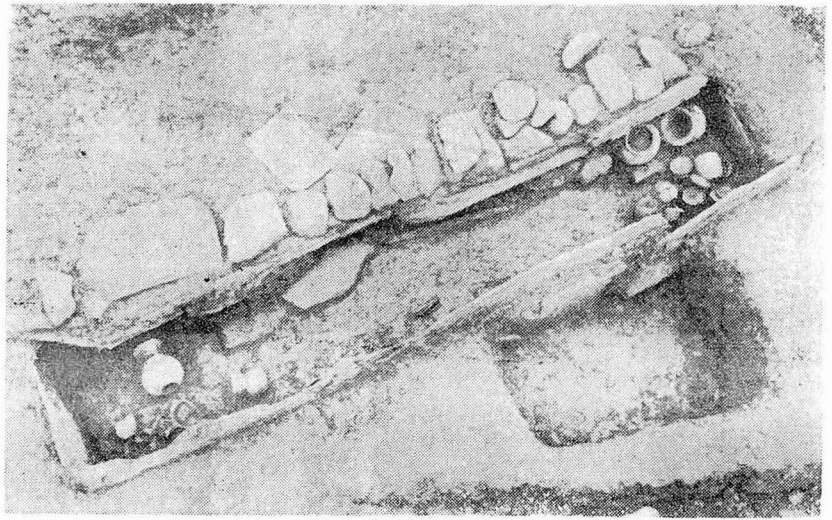
으며 貴重한 先史遺蹟을 收拾코자 破壞墳의 整理와 諸遺物의 發掘을着手하게 된 것이다.

이번 發掘調査에는 筆者가 主管하여 史學科生 男女三十一名이 參加하였으며 記錄에는 大院院史學科生 李昊榮君이 手苦하였고 同人 申榮勲氏가 實測을 擔當하고 發掘進行과 遺物收拾까지도 助言을 주어서 計劃대로 圓滿한 作業이 遂行되었다. 今般 施行된 發掘調査의 詳細한 內容은 앞으로 發刊된 報告書에 發表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만 發掘의 進行과 出土된 石箱墳의 構造 및 諸遺物의 內容을 略報코자 한다.

泗川邑內로 부터 三千浦行 車道로 約 十km 龍見面所在地에서 下車하여 西岑海岸으로 一·五km 쯤 步行하면 松旨部落에 이른다. 이 마을에서 西南쪽으로 바다 건너 바라보면 昨年度에 發掘調査한 西浦面 舊平里 貝塚地域③이 보이며 (直線距離 約 十km 라 함) 西쪽으로는 長大한 堤防이 築造되었는데 筆者가 郡當局에 問議調査한 바에 依하면 이 防築은 日帝末년에 完



發掘現場 光景



第1號墳遺構

成된 것이라 하는 바  
이 築防으로 말미암  
아 泗川灣에 數十萬  
坪의 干拓地가 생기  
게 된 것이라 한다.

上記한 石箱墳群이  
位置하고 있는 耕作  
地가 바로 洪氏家의  
北쪽 언덕이며 干拓  
地邊이어서 干拓  
作業時 이곳에서 많  
은 土量을 運搬하여  
海邊埋沒에 使用하  
였다고 한다. 그런까  
닭으로 現在 이 耕作  
地는 三〇—四〇cm  
깊이로 耕作하면 無  
數한 板石과 土器가  
破損出土되고 있다.

기로 한)에 限定하고 東쪽에서 西方向으로 長五〇m 幅一·五m 길이  
五〇cm의 「트렌치」를 北쪽으로 부터 一·五m 간격을 두고 N<sub>1</sub> N<sub>2</sub>...順  
으로 N<sub>6</sub>까지 넣어서 石箱墳의 露出을 試圖했는데 發見된 順序대로 第一  
號墳 第二號墳의 名稱을 붙혀 全 第十三號까지에 이르렀다.

大概是 現地表 約三〇—四〇cm 地下에서 發見되었는데 蓋石들은 거의  
破失되고 間或 그 殘片이 出土되는 것도 몇 基 있었다. 構造는 第一號  
부터 第十二號까지가 同一하게 積반岩 板石을 組立하여 石箱을 쌓으며

第十三號墳만은 川石으로 石槨을 만들고 있는데 十三基中 完形으로 發  
掘되고 遺物도 收拾된 것은 第一號、第二、三、四、六、七、十三號墳이  
며 以外는 全破 或은 半破되어 遺物도 또한 그러하였다. 形態는 勿論  
長方形인데 最大의 것은 第一號墳으로 長三·五m 幅七〇cm이며 以外  
는 長二·九m 内外로 거의 같은 크기다.

分布는 東西 或은 南北方向으로 安置되어 있는데 今次 發掘한 地域에  
서 東·北쪽으로 더욱 擴大하면 많은 遺構가 發見될 것으로 推定된다.  
出土物은 石器는 全無하며 鐵器와 土器 및 裝身具 等이다. 鐵器로는  
長劍과 短劍 外 鎧子와 小鏃이 多數였으며 土器는 把手 및 附蓋의 赤色  
土器와 灰土로는 廣口の 壺 및 낮은 臺가 있는 無頸壺가 數點 出土되어  
注目을 끌었다. 高環形은 全無하고 底面이 共히 圓形이다. 裝飾具로는  
管玉의 목걸이와 細環耳飾이 出土되었는데 한쌍만이 原位置에서 完形으  
로 收拾되고 그 外 三點은 表土의 교란으로 因하여 原位置에서 移動된 것  
같으며 그래서 한쪽씩만이 殘存한 것 같다. 이 耳飾의 鍍金은 찬란한  
데 細環 뿐으로 거기에 附着된 다른 裝飾은 一切 없는 素朴한 裝身具라  
하겠다. 이 耳飾과 목걸이의 出土로 보아 當時 屍體의 埋藏方向을 알 수  
있는 바 東西向의 石箱墳은 東쪽으로 머리를 두었으며 南北向의 石箱墳  
은 南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음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이번에 發掘된 土器들은 그 質로나 形態로 보아 伽耶系統의 土器와도  
같다고 보겠으나 多少 그 形態上에 있어서 異形을 이루는 問題點도 있  
어서 이들 遺物의 整理와 再檢討에서 諸問題點이 밝혀져야 될 것이다.

끝으로 이번 發掘調査에서 手續時부터 發掘終了時까지 많은 後援을 주  
신 金相朝 郡守와 泗川郡의 高昌燮 郡守 金榮泰 公報室長 그리고 現地가  
지來訪하여 遺物整理와 包裝에까지 協助해주신 梨花女大 博物館長 秦  
弘燮 教授 및 金和英氏 一行과 李宗碩氏께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이며  
특히 發掘着手時 現地를 中心한 周圍 諸地域의 地質과 岩石을 調査해  
준 首都女子師範大學 地歷科의 鄭璋鎬 教授께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註

① 昨年(一九六七年)부터 始作하여 三年을 計劃하고 있는 바 今年

은 二次年度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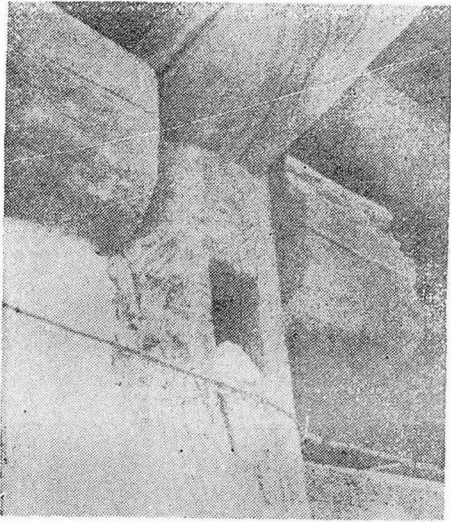
② 豫備調査次筆者와 같이 現地를 踏查하였다.

③ 拙稿 泗川 舊坪里 貝塚發掘調査概要(本誌 第八卷 第八號 通卷 第八五)

# 無拱牙系建物の一例

申 榮 勳

三國史記 卷三三 雜志 一 屋舍條에 四頭品과 百姓은 室의 長廣이 十五尺을 넘지 못하고 山楡木을 쓸 수 없으며 藻井을 배설지 못하고 唐瓦를 덮으면 안되고 獸頭와 겹처마 拱牙懸魚를 달 수 없으며 金銀과 鑰石이나 銅鐵으로 장식할 수 없다는 등의 建築制限令 條文이 실려 있다. 拱牙를 쓰면 안된다는 制約이 포함되어 있다. 五頭品에서 벌써 重楹



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 問題이다. 이러한 法規가 오늘날도 있어 制約을 가한다면 犯則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집은 민도리집류의 모습으로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민도리집이라는 짙은법은 기둥 윗몸에 장혀를 파 십자로 짙아 얹히고 그 위에 왕찌 짙은 도리를 올려 놓아 바로 서가래를 받게 한 無拱牙系의 樣式이다.

이러한 집은 지금 民家(第宅・邸宅類)에 속하지 않는 家屋에서나 볼 수 있는데 이렇게 民家에만 唯存하는 것은 오래전 新羅代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遺風이 蘊存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內包되어 있다. 오늘날의 민도리집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그 양식이 변천되었을까. 혹은 한 모습만을 간직한 채 흘러온 것인가를 찾아내고 脈을 짚어보는 수고가 있어야 이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될 것 같다.

해답을 얻게 되면 羅代以前의 모습 말하자면 先史民들이 草構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차 익혀 내려온 그 結構手法에 출이 닿아 原始住居의 한 形態를 짐작할 수 있는 데까지 치달아 올라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文獻에 보이는 有史生活初年人들의 上古住居의 形狀과 脈이 짚어진 結構手法과가 막들어 맞아 빈틈 없게만 되면 다른 地域(他國)의 그것과 전주어 뚜렷한 하나의 系統圖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너무 커지고 거창하여졌지만 이렇게라도 하나 하나를 체크 하며 逆流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겠다.

그러한 첫발디딤으로 慶州 鷄林鄉校 大門을 체크하고 잠깐 소개한 바 있었다.(註)

그간 몇 채의 住宅 등과 寺刹建物を 조사하면서 또 몇 가지의 知見을 넓혔다.

法住寺 捌相殿 東便의 僧房 北쪽 翼舍도 민도리집과 鷄林鄉校 大門과 의 中間쯤에 놓일 또 하나의 독특한 資料이므로 그것을 간단히 소개하고 싶다.

斯界의 關心이 여기에 모이면 無拱牙系建築樣式의 系譜가 머지않아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 二

僧房은 지금 境內 南北軸으로 놓인 큰 채와 東西로 놓인 작은 채가 있다.(新築中인 僧房 除外) 여기에 對象이 된 것은 東西軸에 놓인 작은